



매화마을



광양곶감

시민설문조사에서 뽑힌 광양 10경

- 백운산 4대 계곡
- 광양제철소 야경
- 매화마을
- 옥룡사지 동백림
- 백운산 휴양림
- 구봉산 전망대
- 광양 이순신대교
- 서천 무지개분수
- 섬진강의 봄
- 섬진강 자전거길



광양제철소 야경



백운산 성불계곡



섬진강의 봄

광양 10경 10味 뜬다

市, 관광자원·먹을거리 홍보...올해 연말 선정

광양을 대표하는 맛과 멋은 뭘까? 광양시가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경관과 먹을거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해 연결하는 '광양 10경(景)·10미(味)'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소위원회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 검토한 뒤 선정위원회에 최종 선정해 연말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음식 = '광양 10경'은 시민 누구나 공감해야 하고, 관광자원으로서 경제성, 광양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관광객, 시민들이 선호하는 곳을 선정하게 된다.

또 '광양 10미'는 광양의 먹을거리와 특유의 손맛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확대 지정하는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 결과 '광양 10경'에는 백운산 4대 계곡, 매화마을, 백운산 자연휴양림, 광양 이순신 대교, 섬진강의 봄, 광양제철소 야경, 옥룡사지 동백림, 구봉산 전망대, 서천 무지개분수, 섬진강 자전거길 등이 선정됐다.

당초 '광양 5미'로 광양불고기, 광양백운산 고로쇠, 광양 섬진강재첩, 망덕포구 가을전어, 광양 기정떡 등을 선정하려 했다.

하지만 광양은 특유의 손맛이 뛰어나고 먹을거리 자원 또한 풍부해 매실차, 매실장아찌, 닭숯불구이, 광양곶감, 섬진강뱃굴, 장어구이까지 검토해 '10미'까지 확대 선정키로 했다.

광양시에는 과거 1930년대 박헌모(1880~1966)선생이 작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양 10경(曦陽十景)'이 전해져 오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과거의 '희양 10경'은 광양시의 발전과 함께 일부 사라지거나 퇴색돼 현대적 관광트렌드에 부합한 '광양 10경'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광양불고기 등 맛의 고장 광양 먹을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10미'도 함께 선정해 광양 대표 먹을거리로 홍보하고 광양관광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광양 10경·10미' 선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말까지 '광양 10경·10미' 선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과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관광역 및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광양 10경·10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했다. 시민·사회단체·지역원로·공무원 등 2598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광양읍, 중마동과 기타 면·동의 사람 수를 고려한 균형적인 의견수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 10경'은 광양 비경 20개소가 추천됐고, '광양 10미' 후보로는 13가지 음식과 먹을거리가 제시됐다.

광양시는 '광양 10경·10미' 선정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성, 역사성, 시민의 공감도 반영 ▲중첩된 경관은 통합 ▲신 관광도시 광양을 마케팅할 수 있는 후보지 등을 선정했다.

올해 말 최종 선정될 '광양 10경 10미'는 광양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먹을거리를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는 물론 관광협회, 전국 지자체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대형 조형물과 관광안내판, 시정 홍보물 등을 설치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의 명소를 집중 홍보하고, 유명 여행사, 언론인 초청 팸투어 추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민설문조사에서 뽑힌 광양 10味

- 광양불고기
- 닭 숯불구이
- 백운산 고로쇠
- 광양곶감
- 섬진강 재첩
- 섬진강 뱃굴
- 망덕 가을전어
- 장어구이
- 광양 기정떡
- 매실차·장아찌



광양불고기



섬진강 뱃굴



재첩회

광양시 청렴도 평가 전남 1위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남 도내에서 1위, 전국 시 단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은 전국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와 기관 소속 직원의 내부청렴도를 조사해 부패사건,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광양시 종합청렴도는 7.83점으로 전국 시 단위 평균(7.39점)보다 0.44점 높고, 전체기관 평균(7.78점)보다 0.05점이 높다. 외부청렴도는 7.91점, 내부청렴도는 7.79점, 감점 0.05점으로 측정됐다.

한편 전남도내에서 강진군(7.79점)이 2위, 장성군(7.77점)이 3위, 목포시(7.66점) 4위로 나타났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확정 테니스·축구·야구장 등 만들기로

광양국가산업단지 금호동 주택단지내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광양시는 광양국가산업단지 금호동 주택단지 안에 '스포츠 콤플렉스 개발계획'이 지난 27일 전남도로부터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존 광양 축구 전용구장 옆 테니스장과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최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이용자 수와 비교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은 어울림체육관 옆 공터에 체육시설 확충과 집중화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95억원이며 전체 사업지 규모는 약 13만㎡에 이른다.

1단계 사업으로 약 6만㎡의 부지에 50여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5년에 약 7만㎡의 부지에 45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테니스장 7면, 축구장 10면,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 등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서울병원 보건부 장관 표창

광양서울병원이 최근 국립 여수검역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광양서울병원은 지역사회 실권 활동의 하나로 의료난후 마을과 경로당을 돌며 의료봉사를 펴는 등 보건당국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원혁 이사장은 "보건의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 앞으로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병원이 대도시 병원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개원한 광양서울병원은 '어깨사랑 척추사랑' 클리닉을 운영,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인근 여수와 경남 하동 등지에서도 어깨와 척추 치료를 위해 찾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단부	652-0175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침철	673-1600
단장	973-2900
침평	224-8212
치평	376-6511
암남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since 195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방구독_062 220-0550